

금융 Weekly Insight

바닥 다지기 국면에 돌입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6월 다섯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전주 금융주는 모두 KOSPI 대비 언더퍼폼. 시장 민감도가 높은 증권이 가장 부진, 은행이 상대적으로 양호.
- 주중 서킷브레이커 2회 발동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 하에서 금융업종 또한 시장 흐름을 벗어날 수 없었음. 특히, 주도주 주가 하락 시 이를 추격 매수하기 위한 기타 업종 차익실현 니즈 확대 움직임 또한 관찰되었던 상황.
- 다만, 2분기 및 하반기 견조한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여지가 충분하여,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은 비중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타당한 국면으로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높은 시장 변동성 속 은행은 실적 및 Valuation이라는 강점 부각 기대: 은행주는 9.0% 하락. 은행주 또한 높은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 다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 하에서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이는 7월 중 발표될 은행들의 실적은 금리 상승과 생산적 금융 중심 대출 성장 호조로 인한 이자이익 성장과 더불어 증권사 중심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이 1Q에 이어 견조한 실적 개선세를 견인할 여지가 큰 반면, 은행주 PBR은 여전히 26E 기준 0.7배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즉, 단기적으로 은행주는 실적 시즌과 더불어 일부 은행의 주주환원 강화 발표가 여전히 Valuation의 추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을 비중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 증권 - 외부 요인으로 흔들린 주가, 메리트는 여전: 증권 업종 주가는 w-w 14.1% 하락하며,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였음. 주중 두 차례 증시가 서킷브레이커에 돌입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확대가 일차적인 부진 원인. 이에 더해 1) 금감원의 레버리지ETF 투자자 보호 감사 착수 및, 2)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 관련 관리 주문 확대 등 업종 전반에 규제 리스크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벤트 발생 또한 증권사 투자심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하였음. 다만, 주식운용 PI 손익 외에 본질적으로 최근의 변동성 확대가 증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대형 증권사 기준 PBR 1배를 하회하기 시작한 현 시점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국면이라고 판단.
- 보험 - 방어주 성격이 무색한 주가 흐름: 보험 업종은 w-w 11.5% 하락하며 KOSPI 대비 언더퍼폼. 통상 지수 하락 시, 반도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화재 정도 조정을 받았으나, 지난주에는 전 보험사가 모두 부진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였음. 이는 결국 섹터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지난주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외국인/기관 자금 이탈 등에 따른 조정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 보험업종의 경우 하반기 실손 보험 제도 변화(관리급여 도입) 및 GA 수수료 분급 등 업황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6/22) 예금도 양극화 - 상호금융 15조 이탈</p> <p>- 4월말 기준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915.6조원으로 15.2조원 YTD 감소. 새마을금고가 8조원으로 가장 컸고, 신협 3.4조원,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3.7조원 감소.</p> <p>- 같은 기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27조원 및 2조원 증가. 이는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도.</p> <p>- 상호금융 수신 이탈 원인으로는 PF 부실화 우려 및 예탁금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 (과거 예탁금 3천만원 기준에서 올해부터 연봉 7천만원 초과 조합원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 납부 필요).</p> <p>- 수신 방어를 위해 이들 상호금융은 연 4%대의 예적금을 판매.</p> <p>- 문제는 상호금융의 운용. 가계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대출도 규제 강화로 대출 중 부동산 PF 및 건설부동산업은 각각 20% 및 50%를 넘을 수 없음. 결국, 실적 악화와 자금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우려.</p>	<p>은행 수신 증가도 기업과 가계 구분 필요: 은행도 머니무브에 따른 가계 수신 이탈 압력은 높음. 다만, 은행의 수신 고객이 다른 2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신 중 결제성 자금 수신 비중이 높으며, 기업 수신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이 수신 방어에 기여하고 있음에 주목 필요.</p> <p>즉, 은행도 가계 수신에 대한 고민이 높은 상황: 증시로의 머니무브 속에서 은행도 가계 수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 수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없는 만큼, 금리 이외의 수단을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 금융 그룹 내에서 이들 자금을 묶어 놓는 방안 등이 향후 관건 판단.</p> <p>반면, 2금융권은 구조적 고민이 높아지는 시점: 반면, 2금융권은 상황이 녹록치 않음. 머니무브가 지속된다면, 2금융권은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한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반면, 자금을 운용할 용처는 마땅치 않기 때문. 즉, 높은 조달 금리를 충분히 총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의 대출 운용처가 있어야 하는데,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 및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 하에서 은행이 불가피하게 영역을 넓힐 경우, 2금융권의 입지는 좁혀질 여지가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p>
	<p>(6/23) 5대 은행 신용대출 관리 목표 초과</p> <p>-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용대출 관리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 5대 은행 전체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을 YTD 1253억원 감축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잔액이 1.2조원 증가. 특히, 지난 4월부터 주담대 및 기타대출로 구분하여 월별 증감액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모든 은행들이 관리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것.</p> <p>-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정부의 획일적인 총량 규제로 올해 신용대출의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진 만큼,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p>	<p>과거 주담대 한도 초과 시의 경험: 과거 주담대 한도가 연간 목표를 초과했을 경우, 은행들은 4분기부터 대출 문턱을 큰 폭으로 높임으로써 대응. 이는 결국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 이로 인해 이르게는 10월 경부터 일부 은행들의 대출 판매가 중단된 바 있음.</p> <p>가계 기타 대출에 대한 고민은 더 커: 문제는 올해 가계 기타대출, 즉 신용대출과 집담대출이 이미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점. 당초 계획은 올해 은행들이 기타대출을 축소, 디레버리징에 방점이 있었으나, 연초 기대와 달리 올해 증시는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FOMO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신용대출의 급증으로 귀결. 문제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기능이 막힐 경우, 주담대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 이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건당 ticket size가 작고, 실수요자의 자금용처가 주담대에 비해 더 절박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p> <p>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분명 FOMO에 기반한 과도한 빚투는 관리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반면, 해당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다른 소비자들의 빚투로 인해 1금융권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보다 섬세한 접근이 관건 판단.</p>
	<p>(6/25) 유럽은행과 코인 실험에 나선 시중은행</p> <p>- 국내 은행권은 유럽 은행들과 원화 -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송금 및 지급결제 실험을 시작.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체인링크는 유럽 37개 은행이 만든 민간 컨소시엄 키발리스와 한국의 유니카가 공동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협력 프로젝트를 판계야를 출범한다고 공표.</p> <p>- 판계야는 국경간 외환거래와 지급결제 구조를 실시간에 가깝게 바꿀 수 있는지 검증하는 프로젝트. 이는 프로젝트 팩스의 연장선으로 프로젝트 팩스는 한일 간 송금과 정산 가능성 검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p>	<p>스테이블 코인 입법화를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 입증 노력의 일환이라 판단: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에서 가장 큰 질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성. 즉, 누가 사용할 것인가, 이에 따른 효용이 있는가 등이 주된 push back. 사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모두 공통되는 문제라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p> <p>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리테일 뱅킹이라기보다는 기업금융 등 대규모 결제 및 송금이라 판단: 일각에서는 해외 여행 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기대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부각. 그러나, 현재 은행이 추진하는 방향은 이보다는 보다 도매 금융에 가까운 무역금융 등에서의 실시간 결제 및 송금으로 판단. 이는 1) 리테일과 달리 도매금융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고, 2) 거래 건당 금액을 감안, 보다 비용대비 수익성이 소매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3) JP모건의 예금 토큰 등 대형 미국 은행들의 시장 지위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6/25) SK하이닉스 카드채 큰 손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AA이상 등급의 1.4조원 상당의 카드채를 매입. 특히, 이 중 0.9조원은 6월 중 발행된 물량이며 금리는 4.1~4.2% 수준. - 한편, 특이한 점은 만기. 이들 채권의 만기는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2년 4일, 2년 2개월 24일 등 SK하이닉스의 자금 운용일정에 맞춰서 채권이 발행된 것. 카드사들은 카드사태 이후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회사채 만기를 일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도 용이하다고 언급. 	<p>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자금력에 초점: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이 과정에서 카드채는 금리 및 안정성 측면은 물론, 이와 같이 만기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됨에 따라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으로 부각된 것으로 판단. 향후 이와 같이 기업의 운용 니즈에 맞춤형 상품 및 안정성을 보유한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출시될 수 있음을 시사.</p> <p>은행들의 MMDA 예치는 한계 -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 판단: 참고로, 은행들이 이들 기업의 결제성 자금을 MMDA로 예치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 이는 MMDA의 급격한 증가가 오히려 LCR과 NIM, 혹은 잠재적으로 채권 관련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 다만, 반도체 기업의 거액 자금을 1금융권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1금융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을 제고하는 유연한 접근에 대한 고려도 점차 필요할 것으로 판단.</p>
	<p>(6/25) 카카오편크 - 마스틴캐피탈 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편크는 이사회를 열고 마스틴 캐피탈을 인수를 결의한 것으로 공시. 동사에 대한 지분 100%를 241억원의 현금으로 취득하는 조건. 동사는 이를 통해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을 언급. - 마스틴캐피탈은 22년 마스틴투자운용과 NH투자증권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리스, 기업금융 등을 영위. 지난 해 기준 자기자본 211억원, 총자산 524억원, 여신 446억원, 연체율 5.09%, 23억원 순손실 기록. - 카카오편크는 내년 자동차 리스, 렌탈 금융을 시작으로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 	<p>인어 자본의 활용 + 플랫폼 역량 강화 노력은 긍정적: 당초 기대와 달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동사의 자본비용은 높은 수준에서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음. 이는 ROE의 상승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물론, 과잉 자본의 상태가 지속됨을 시사. 결국, 동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해외 진출은 물론, 비은행 부문으로의 inorganic 성장 등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 중. 금번 M&A는 이에 대한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p> <p>다만, 포화 시장에서 자본 200억원 수준의 캐피탈사의 활용 역량 입증은 분명 필요: 다만, 캐피탈, 그것도 소형사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음. 이미 다른 금융그룹들이 캐피탈사를 인수 혹은 육성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특히, 오토금융 등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생활 가전 렌탈 비즈니스 또한 과거 충분한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고려 필요. 이러한 가운데, 마스틴캐피탈은 자본이 200억원을 조금 넘어선 가운데, 캐피탈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받는 만큼, 현재의 자본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산 및 수익기여도 크지 않을 수밖에 없음. 결국, 관건은 카카오편크가 어떻게 차별화된 실적을 증명하는가가 될 전망.</p>
	<p>(6/26) 5월 예대금리차 발표 - 신규 2bp 축소, 잔액 fl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이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 신규 예대금리차는 1.26%로 2bp-m 축소된 반면, 잔액 기준은 2.28%로 동일. -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2.93%로 1bp-m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4.19%로 1bp 하락. 기업대출금리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1bp 하락한 영향이 컸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지원과 대규모 저금리 대출 취급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3bp 상승. 특히, 신용대출 취급 비중 상승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야기. 이와 더불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10bp 급등,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며 신규취급액 중 주담대 고정형 금리 비중은 41.6%로 21년 6월 이후 최저 기록. 	<p>은행 NIM 안정적 흐름 전망: 신규 대출 금리 및 수신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NIM은 안정적 흐름이 2Q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같은 우호적 NIM 흐름이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 필요. 결국, 올해 대출 성장 및 NIM의 상승으로 인해 이자이익 성장이 예상보다도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p> <p>대출 믹스 변화 영향 확인: 연초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증시 호조로 인해 가계 신용대출 증가로,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부 대출 비중 확대 등이 나타났고, 이는 금리 방향성 이외에도 은행의 NIM에 영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특히, 6월에도 가계신용대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잔액의 금리 Re-pricing 가능성 감안 시, NIM은 추가적인 개선 압력이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판단.</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p>(6/26) KB금융, KB증권에 1조원 유상증자 - 생산적 금융 + I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금융은 KB증권에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가하기로 결정. 지난 2월 말 0.7조원에 이어 4개월만에 추가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이며, 이로 인해 올해만 1.7조원을 증권에 증자한 것. - 이의 일차적원인은 생산적 금융. KB금융은 2030년까지 93조원의 생산적 금융을 집행 계획인 가운데, KB증권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며 그룹 내 배분 받는 RWA 한도 확대가 필요해진 것. - 이와 더불어 IMA도 또 다른 원인. 금번 유증으로 당사는 IMA 사업 필수 조건인 자본 8조원을 상회. 1Q 기준 자본 7.6조원이었음. KB증권은 인가를 얻어 2028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p>KB금융의 발 빠른 움직임은 긍정적 평가: 올해 최대 화두는 단연 증권, 리테일 부문의 머니무브로 증권사는 리테일 자금 유입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의 유입 및 고액 자산가에 대한 자산관리 영업 등이 주목받는 상황. 이에 KB금융은 KB증권에 대한 증자를 통해 해당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함으로써 선두 기업과의 격차 축소는 물론, 다른 증권사들과는 규모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가능.</p> <p>생산적 금융 강화+IMA: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 속에서 증권사의 자본 활용 방안도 주목받는 부분. 이는 단순히 증권사의 참여 증대를 넘어 증권사의 경험 축적 및 향후 딜 소싱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접근 필요. 더 나아가, 이는 앞서 언급한 리테일 자산관리에 있어 차별화된 상품 제공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 필요.</p> <p>관건은 은행 및 금융그룹 내 시너지 활용: 이러한 가운데 관건은 당사의 KB금융 활용 역량이 될 것. 다른 mono-liner들과 달리 당사는 은행의 고객 기반은 물론,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은행의 여신 공여 및 기업금융 고객을 활용 가능. 즉,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p>
	<p>(6/28)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은행의 6월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3.7조원 m-m 증가. 이로 인해 전월 3.5조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2조원 증가하며 2달 연속 2조원 이상 증가. 빚투 수요가 이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 - 금융당국은 6월 초 은행권의 강도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였고, 이에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음. 일례로,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 무관 1억원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 - 그러나,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하반기 추가 규제 가능성이 대두. 다만, 현재의 대출 성장이 이미 한도가 약정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은행들의 자체 규제가 6월에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 시 당분간 관망세 가능성도 제기. 	<p>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낮춰야 할 유인이 높음: 결국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보다는 낮춰야 할 유인이 높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p> <p>다만, 관건은 공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 다만, 높은 수요에 비해 제한된 공급, 이에 따른 공급 불일치는 가격 상승, 즉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에 초점 필요. 물론, 포용금융 등 은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는 과거 대출 오픈런과 같은 선착순 대출 및 이로 인해 은행의 NIM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 다만, 적어도 과거 은행이 경쟁으로 인해 NIM이 축소되었던 경험이 재현될 여지는 낮다는 점에 초점 필요.</p>
증권	<p>(6/26) 레버리지 ETF '과열'에 감사원 감사까지...당국 투자자보호·증권사 수수료 겨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찬진 금감원장이 6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극단적 회전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연간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 - 감사원은 6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20일간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에 착수하며, 레버리지 ETF 수수료 구조 및 투자자 보호 시책 작동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으로 포함. - 황성업 금투협회장은 상장 이후 실제 수수료가 약 500억원 수준으로 원장 발언과 이견을 표명하며 당국-업계 간 인식 차이가 수면 위로 부상. 레버리지 ETF 관련 규제 방향성이 본격 가시화하는 국면으로 판단. <p>(6/25) 역대급 신용융자 조이기 나선 금감원...증권사 소집해 '기계적 리스크 관리서 탈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가 지난해 20.9조원에서 2026년 5월 36.3조원으로 급증하자, 금감원은 6월 24일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증권사 10곳 리스크담당 임원(CRO) 간담회를 개최. - 기계적 리스크관리 탈피와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미수거래 유도 영업관행 자제도 요청. - 이번주 KOSPI 급락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주식 424억원이 강제 처분되며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국면. - 향후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용융자·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 	<p>레버리지 ETF 이중 압박, 대형 증권사 투자 심리에는 부담: 감사원 감사와 금감원 경고가 동시에 가해지면서 레버리지 ETF 시장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부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판매를 통해 수수료, 스프레드 마진 수익을 기대하던 대형 증권사 투자 심리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만 당국과 업계 간 수수료 규모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구체적 규제 설계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이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p> <p>증권사 별 신용융자 한도는 이미 대부분 소진한 상황: 금감원의 신용융자 관리 압박 강화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운영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대부분 대형 증권사가 상반기 중 신규 신용 한도를 소진한 상황으로 급격한 시장, 수익 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신용공여 심사에서 나아가 이자율 마진 관련하여 규제 방향성이 확대, 전환될 경우 이는 마진 축소에 대한 압력으로 추가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보험	<p>(6/24) 금감원, GA 관리 고삐... 'GA 소비자 피해 책임은 보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이 6월 23일 생보사 22곳·손보사 17곳 감사 임직원 100여 명 대상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를 통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명확히 설정. - 요양시설 법인이 GA 컨설팅을 통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편취한 사례 등 불법 행위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촉구. - 7월부터 GA에도 초년도 수수료 한도인 '1200%'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GA 채널 영업 질서 확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 - 금감원은 GA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과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계획도 병행 추진 중. 	<p>GA 책임 보험사 귀속 명확화, 판매채널 관리비용 구조적 상승 불가피: 금감원이 GA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을 보험사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를 명확히 함에 따라, 보험사는 GA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로 전환. 7월 1200%를 GA 확대 적용은 수수료 경쟁 일부 완화 효과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GA 채널 영업 위축과 신계약 감소로 이어져 생보사 APE 성장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GA 의존도가 높은 중소 보험사일수록 판매 채널 다변화 전략 가속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환경으로 평가.</p>
	<p>(6/26) 은행권 틀어막자 풍선효과...보험사 주담대 동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본격화. - 한화생명은 8월 실행분 월별 취급 한도를 소진하며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했으며, 주요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5%대로 인상해 수요 관리에 돌입.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보험사 역시 대출 수요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본격화하는 상황. - 은행·보험 전방위로 확산되는 대출 규제 환경이 가계 자금 조달 경로 전반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수렴 중. 	<p>주담대 풍선효과, 운용자산 확대 기회이나 당국 추가 규제 리스크 상존: 은행 대출 규제 이후 보험사로의 자금 이전은 운용자산 확대와 이차마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추가 총량 규제 가능성이 상수로 작용. 주요 보험사의 선제적 한도 관리는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한도 여력이 있는 중소 보험사의 공격적 취급이 업권 전반의 규제 리스크를 높일 우려. 하반기 보험사 이차마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범위 확대 여부에 주목할 필요.</p>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6-29 (월)		미국 6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지수 유로존 5월 총통화(M3) 공급 영국 5월 협의통화 및 준비잔고 일본 5월 건설수주 일본 5월 소매판매(예비치) 일본 5월 신규주택착공건수
2026-06-30 (화)	5월 산업활동동향 5월 국제수입 현황 발표 26년 11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미국 4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4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미국 6월 시카고 PMI 미국 5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6월 소비자신뢰지수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독일 6월 실업률 독일 5월 소매판매 영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영국 1분기 경상수지 영국 6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5월 실업률 일본 5월 산업생산(예비치) 중국 6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2026-07-01 (수)	금융당국, 증시 상장유지 및 퇴출 기준 강화 시행 5월 온라인쇼핑동향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6월 ADP취업자 변동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미국 5월 건설지출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유로존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독일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영국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2분기 단간 대형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일본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6월 소비자신뢰지수 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홍콩 증시 휴장
2026-07-02 (목)	6월 소비자물가동향	미국 6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5월 공장주문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5월 실업률
2026-07-03 (금)	6월 외환보유액	미국 증시 휴장 유로존 6월 서비스업·합성 PMI 확정치 독일 6월 서비스업·합성 PMI 확정치 영국 6월 CIPS/S&P 글로벌 서비스업·합성 PMI 확정치 일본 6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종합 PMI

자료: 삼성증권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6,677.7	8,411.2						(7.1%)	2.2%	173.1%	99.6%
	KRX은행	184.6	1,436.4						(9.0%)	(5.7%)	25.3%	10.2%
	KRX증권	69.6	2,035.0						(14.1%)	(24.1%)	42.0%	33.0%
	KRX보험	140.9	3,984.4						(11.5%)	4.6%	68.4%	48.8%
	결제 지수**	1.134	n/a						(8.8%)	(20.6%)	(3.0%)	(13.6%)
은행	KB금융	53.0	149,300	57.1	0.9	11.4	8.1	12.9	(5.7%)	(2.9%)	35.9%	19.7%
	신한지주	43.5	91,600	53.6	0.8	10.4	7.8	15.5	(9.2%)	(3.6%)	53.4%	19.1%
	하나금융지주	30.1	109,700	50.8	0.7	10.6	6.8	12.3	(11.2%)	(7.3%)	31.4%	16.6%
	우리금융지주	20.8	28,350	44.5	0.6	10.6	5.9	12.1	(8.7%)	(7.5%)	25.7%	1.3%
	기업은행	15.7	19,660	36.0	0.5	8.5	6.0	2.2	(8.3%)	(4.1%)	6.2%	(6.2%)
	BNK금융지주	4.9	15,880	45.1	0.5	8.3	5.6	9.5	(10.5%)	(7.4%)	28.1%	0.1%
	JB금융지주	4.3	22,850	42.2	0.4	9.5	4.7	21.9	(12.5%)	(6.2%)	10.9%	(10.9%)
	iM금융지주	2.5	15,830	51.8	0.7	13.2	5.7	6.6	(6.7%)	(12.8%)	27.5%	1.8%
카카오뱅크	9.4	19,750	50.0	1.3	8.8	15.2	29.1	(10.8%)	(9.6%)	(37.0%)	(8.6%)	
증권	미래에셋증권	22.5	40,250	40.5	2.0	18.2	15.2	72.9	(17.4%)	(37.6%)	85.0%	73.1%
	NH투자증권	9.9	27,700	45.7	1.3	12.6	11.1	19.4	(13.4%)	(11.1%)	35.8%	31.3%
	한국금융지주	11.1	200,000	22.4	1.1	20.0	6.4	23.6	(13.4%)	(18.2%)	40.5%	23.7%
	키움증권	8.0	306,500	22.6	1.6	22.6	7.8	44.7	(11.4%)	(21.6%)	30.7%	5.9%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6.8	100,600	50.0	1.7	22.8	8.2	14.9	(6.9%)	(3.9%)	(11.7%)	(11.1%)
	삼성화재	28.4	636,000	45.1	1.0	10.1	10.9	12.0	(9.1%)	10.2%	44.1%	28.0%
	삼성생명	86.5	432,500	46.3	0.6	3.7	15.9	17.8	(13.0%)	22.0%	244.6%	174.4%
	DB손해보험	8.6	131,500	32.3	1.1	16.6	6.6	9.0	(9.2%)	(9.0%)	5.5%	0.3%
	한화생명	3.8	4,420	16.4	0.3	5.6	6.3	37.8	(15.3%)	(14.3%)	33.9%	35.8%
	현대해상	2.9	34,400	11.7	0.5	17.5	3.3	18.3	(10.5%)	(4.6%)	28.6%	11.7%
결제	카카오페이	5.1	38,050	n/a	n/a	6.9	40.6	180.2	(13.5%)	(18.6%)	(59.4%)	(22.5%)
	NHNKCP	0.5	12,000	n/a	n/a	17.9	8.3	28.8	(15.1%)	(32.3%)	8.3%	(19.5%)
	KG이니시스	0.2	9,070	n/a	n/a	7.1	4.4	9.9	(6.5%)	(10.0%)	(15.7%)	(11.3%)
	KG파이낸셜	0.1	3,870	n/a	n/a	10.3	5.1	12.1	(4.7%)	(9.4%)	(29.6%)	(17.7%)
	나이스정보통신	0.3	28,000	n/a	n/a	9.1	4.4	39.4	0.2%	1.4%	28.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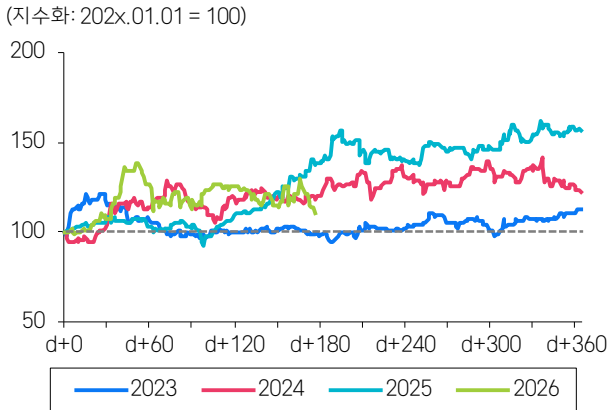
참고: 6/26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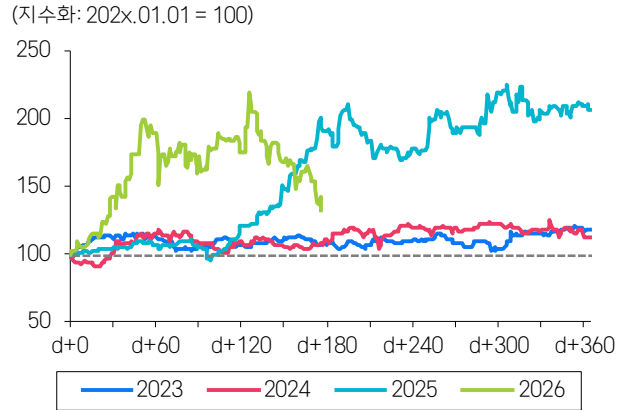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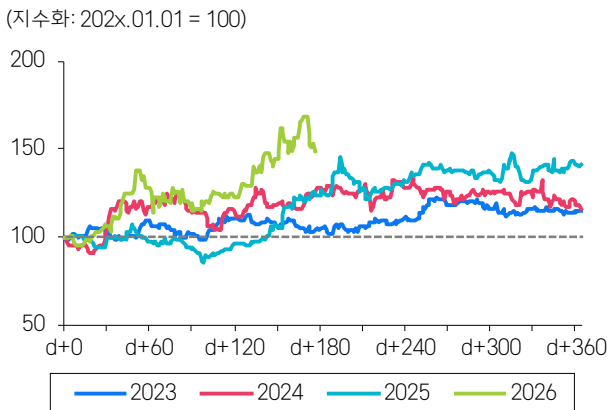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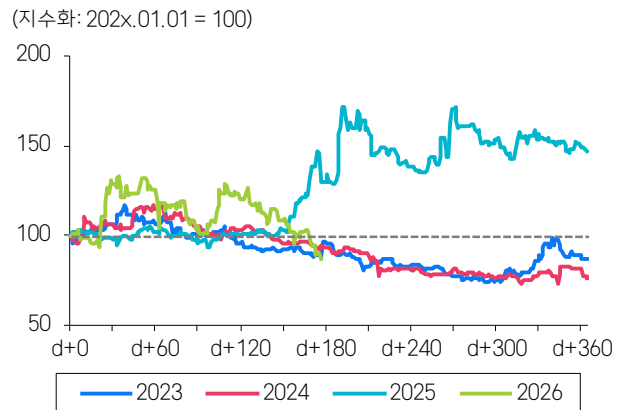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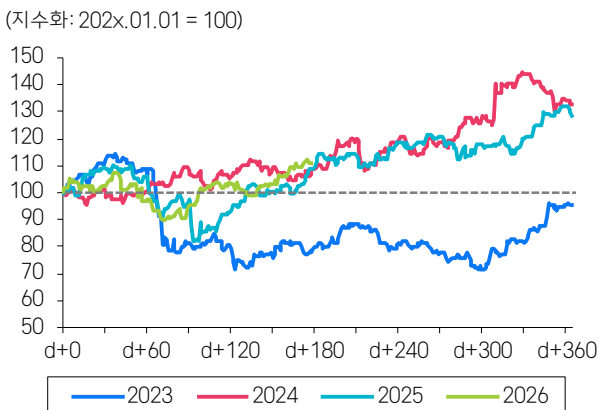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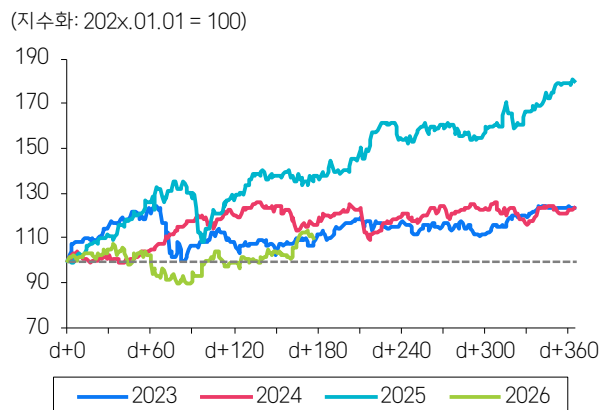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026. 6. 29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81.7	79.5	2.4	17.2	14.6	12.5	1.2	10.9	14.6	2.1
		Bank of America	410.8	103.0	1.4	11.7	12.9	17.7	3.0	14.0	22.8	5.2
		Citigroup	241.8	114.5	1.2	9.7	13.0	55.6	(0.9)	13.7	68.0	21.5
		Wells Fargo	256.6	97.5	1.5	12.8	12.0	11.3	2.0	9.4	5.5	(10.0)
		PNC Financial	98.4	74.6	1.6	12.7	13.3	11.3	5.6	11.5	31.9	17.4
	유럽	Banco Santander	197.9	63.6	1.6	13.9	10.8	13.7	0.2	10.3	68.1	17.5
		Unicredit	132.4	81.4	1.7	17.1	10.2	7.7	(3.1)	3.8	36.4	8.7
		BBVA	137.7	85.0	2.1	19.2	10.4	16.9	0.6	6.8	65.0	7.1
		ING Group	90.5	83.7	1.5	13.5	11.4	10.5	(2.7)	1.9	45.5	14.1
		Lloyds	84.0	80.7	1.4	13.7	10.2	44.6	3.9	8.0	42.5	11.2
		Barclays	91.0	66.8	1.0	10.7	9.1	19.6	2.9	12.9	50.8	7.3
	일본	Mitsubishi UFJFG	238.1	40.3*	1.6	11.9	13.7	11.4	(1.0)	8.2	63.6	30.2
		Sumitomo Mitsui FG	151.2	46.7	1.5	11.3	13.5	15.0	(1.4)	9.8	76.3	26.8
		Mizuho FG	117.7	26.9*	1.6	12.1	13.9	11.6	(1.1)	8.3	96.1	36.7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56.8	30.5*	0.6	9.1	6.4	3.6	(3.4)	(0.3)	4.7	5.2
China Construction Bank		283.7	29.9*	0.6	9.6	6.2	2.2	(4.2)	(2.7)	2.9	7.4	
Agricultural Bank of China		311.5	30.6*	0.6	9.9	6.5	5.1	(6.0)	(7.6)	(7.0)	(7.8)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74.1	N/A	1.4	5.8	23.2	(30.9)	1.6	4.1	1.9	(1.3)
		AIG	40.1	84.3	0.9	10.2	10.5	흑전	2.1	1.6	(10.7)	(11.7)
		Travelers Insurance	69.6	83.6	2.0	18.6	11.6	3.0	6.4	11.2	24.3	12.9
	유럽	Allianz	176.7	80.5	2.4	18.4	13.3	10.6	1.9	6.9	18.6	4.5
		AXA	103.3	59.5*	1.8	16.2	10.4	(7.9)	2.1	9.3	3.5	6.0
		Generali	74.3	57.9*	1.9	14.2	13.7	12.4	(0.1)	9.8	40.7	18.9
	일본	Tokio Marine	82.5	48.7*	2.1	17.3	13.7	80.2	(4.0)	(2.9)	13.4	18.7
		Daiichi Life Insurance	38.7	54.6	1.4	12.7	12.0	20.2	(4.8)	5.5	59.3	32.5
	중국	Ping An Insurance	122.1	36.1*	0.8	13.7	6.2	5.4	(6.1)	(15.8)	0.3	(22.4)
		China Life Insurance	132.9	20.1*	1.1	18.5	6.1	(18.7)	(3.9)	(6.8)	42.0	(1.7)
		PICC P&C Insurance	40.7	38.2*	1.0	13.5	7.8	1.4	(4.6)	(1.3)	(7.2)	(12.2)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2.6	106.4	2.7	16.5	17.1	16.3	(7.0)	1.1	47.6
Morgan Stanley			334.4	72.8	3.1	17.7	17.8	16.9	(5.0)	4.0	50.7	19.4
Charles Schwab			162.3	95.9	3.4	23.1	15.1	28.7	(1.1)	6.2	0.8	(9.2)
Robinhood			88.9	43.7	8.5	17.3	52.6	(8.6)	(8.7)	16.3	18.9	(12.7)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32.2	77.5	6.7	35.2	19.3	14.9	0.7	8.0	7.3	(8.0)
결제	미국	VISA	649.0	21.4*	18.8	67.0	26.3	25.5	2.7	3.5	(3.6)	(4.1)
		MasterCard	441.0	18.1*	51.0	223.2	25.7	17.6	1.9	1.1	(9.3)	(12.6)
		PayPal	39.1	5.4*	1.9	23.3	8.7	(6.3)	4.2	(0.4)	(39.9)	(24.1)
	유럽	Adyen	29.6	0*	4.0	21.3	20.9	17.4	(5.8)	(12.2)	(47.7)	(40.0)
핀테크	미국	Block	46.3	0*	2.0	9.8	35.2	5.4	4.1	4.7	16.8	19.6
		Upstart	3.2	0*	3.9	19.1	37.2	100.9	3.8	3.0	(46.9)	(23.0)
		Affirm	26.6	0*	6.3	11.7	63.9	728.8	7.5	8.9	16.8	6.8
	중국	LuFax	1.1	N/A	0.0	(0.1)	N/A	흑전	1.6	(23.0)	(53.6)	(50.4)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6/26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